

판례로 본 영국특허 분쟁현황

1. 특허법원/특허지방법원의 특허분쟁현황에 대한 정량분석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영국 특허법원 및 특허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99건의 판결문을 연도별, 쟁점별, 산업 분야별로 분석하였다.

1) 특허법원/특허지방법원 연도별 판결건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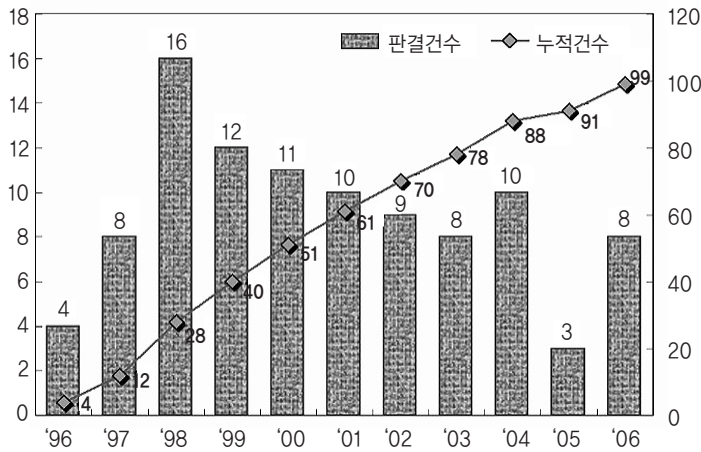


그림 1 특허법원/특허지방법원 연도별 판결건수 동향 및 누적판결건수 동향

그림 1은 분석대상인 특허법원/특허지방법원 판결문 99건에 대한 연도별 판결건수 동향 및 누적판결건수 동향을 나타낸 것으로, 특허법원/특허지방법원 연도별 판결건수 동향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 이후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2) 특허법원/특허지방법원 특허권자 국적별 승패 현황

그림 2는 특허법원/특허지방법원에서의 특허권자의 국적별 승패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영국과 비영국을 비교해 보면, 특허권자의 국적이 영국일 때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비율은 약 39%인 반면, 특허권자의 국적이 영국이 아닐 때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비율은 약 30%였다. 따라서, 영국의 특허법원/특허지방법원은 자국 특허권자에게 다소 유리한 심리태도를 갖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특허권자의 국적이 미국인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승소 확률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적이 영국이 아닌(비영국) 특허권자의 승소 비율이 약 30%인데 반해, 국적이 미국인 특허권자가 분쟁 당사자인 경우에는 특허

권자의 승소 비율이 21%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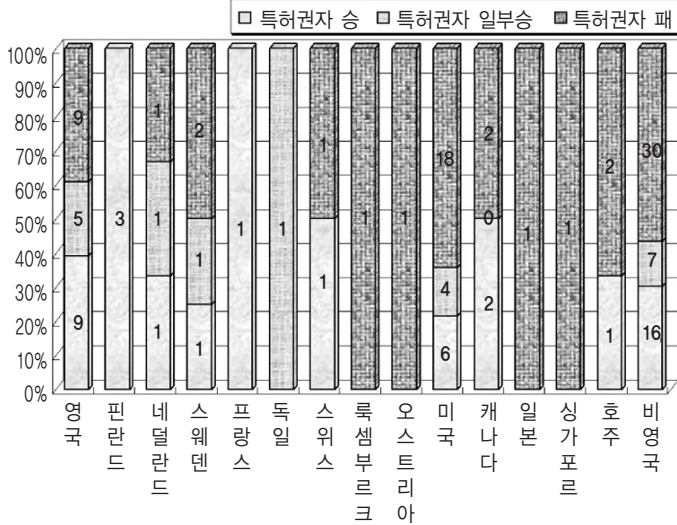


그림 2 특허법원/특허지방법원 특허권자 국적별 승패 현황

3) 특허법원/특허지방법원 기간별 산업분야별 분쟁 동향

그림 3은 특허법원/특허지방법원에서의 연도별 산업분야별 분쟁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주로 화학·섬유 분야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생활필수품 분야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화학·섬유 분야가 소송 절차에서 본안 판결까지 가장 많이 가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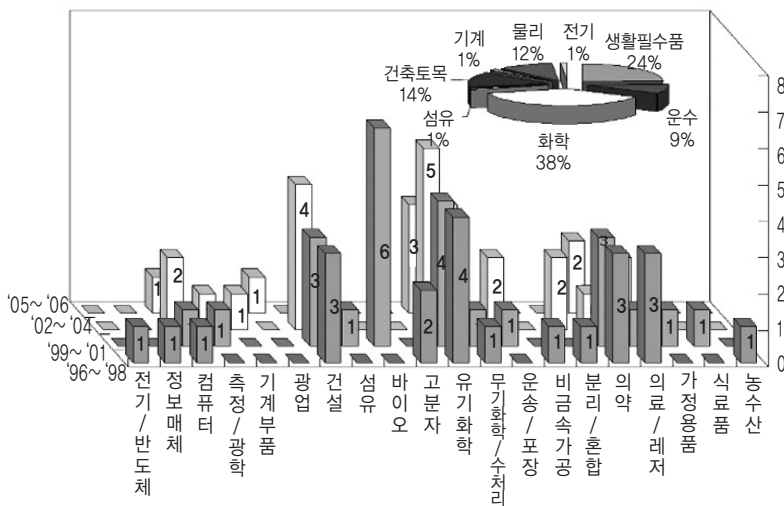


그림 3 특허법원/특허지방법원 기간별 산업분야별 분쟁 동향

4) 특허법원/특허지방법원 산업분야별 원고 승패율 현황

그림 4은 2001년 이후 판례에 대한 특허법원/특허지방법원에서의 산업분야별 원고 승패율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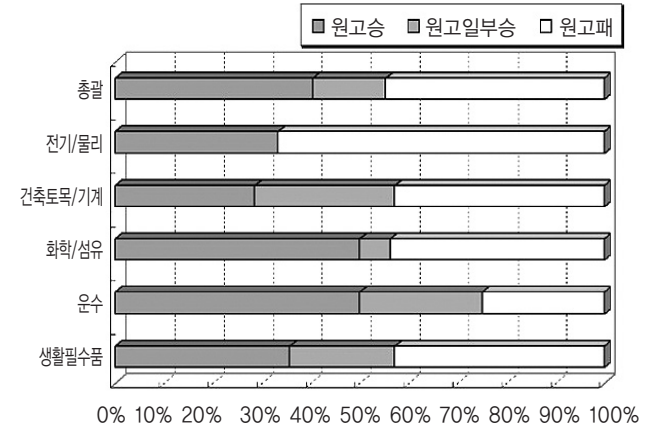


그림 4 특허법원/특허지방법원 산업분야별 원고 승패율 현황

5) 특허법원/특허지방법원 산업분야별 특허권자 승패율 현황

그림 5은 2001년 이후 판례에 대한 특허법원/특허지방법원에서의 산업분야별 특허권자 승패율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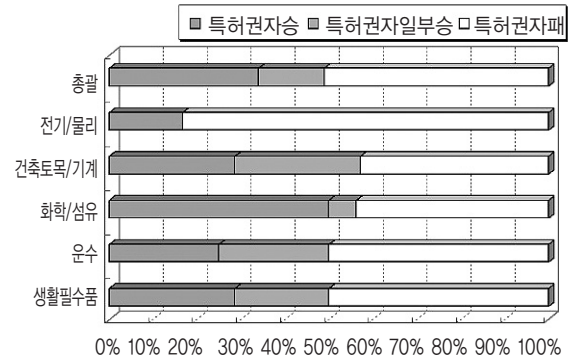


그림 5 특허법원/특허지방법원 산업분야별 특허권자 승패율 현황

2. 항소법원의 특허분쟁현황에 대한 정량분석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영국 항소법원에서 이루어진 57건의 판결문을 연도별, 쟁점별, 산업분야별로 분석하였다.

1) 연도별 판결건수 동향

그림 6는 분석대상인 항소법원 판결문 57건에 대한 연도별 판결건수 동향 및 누적판결건수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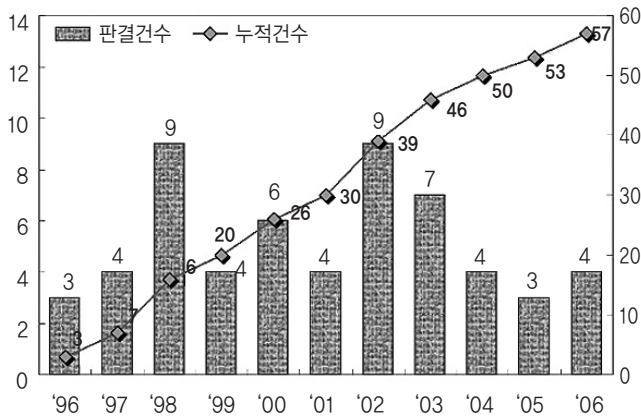


그림 6 항소법원 연도별 판결건수 동향 및 누적판결건수 동향

2) 항소법원 연도별 원고 승패 동향 및 원고 승패율 동향

그림 7는 항소법원에서의 연도별 원고 승패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원고의 승패 동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에 무관하게 전반적으로는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원래의 판결을 유지하려는 영국 법원의 속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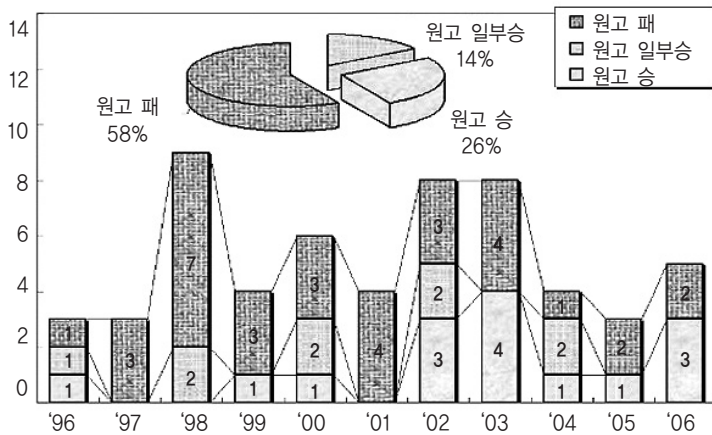


그림 7 항소법원 연도별 원고 승패 동향

그림 8은 항소법원의 연도별 원고 승패율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항소법원에서 원고가 패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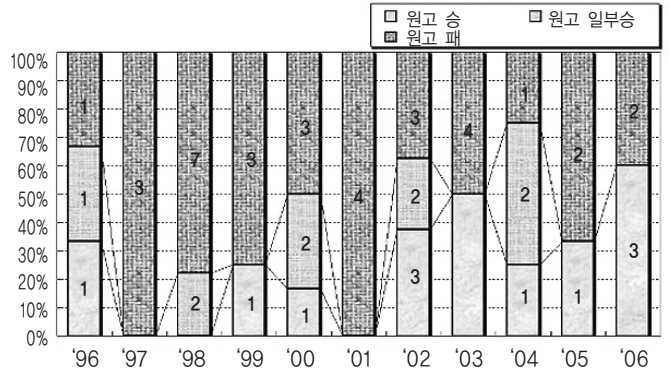


그림 8 항소법원 연도별 원고 승패율 동향

발명특허 2008, 6

